'안전보건'은 모든 일의 기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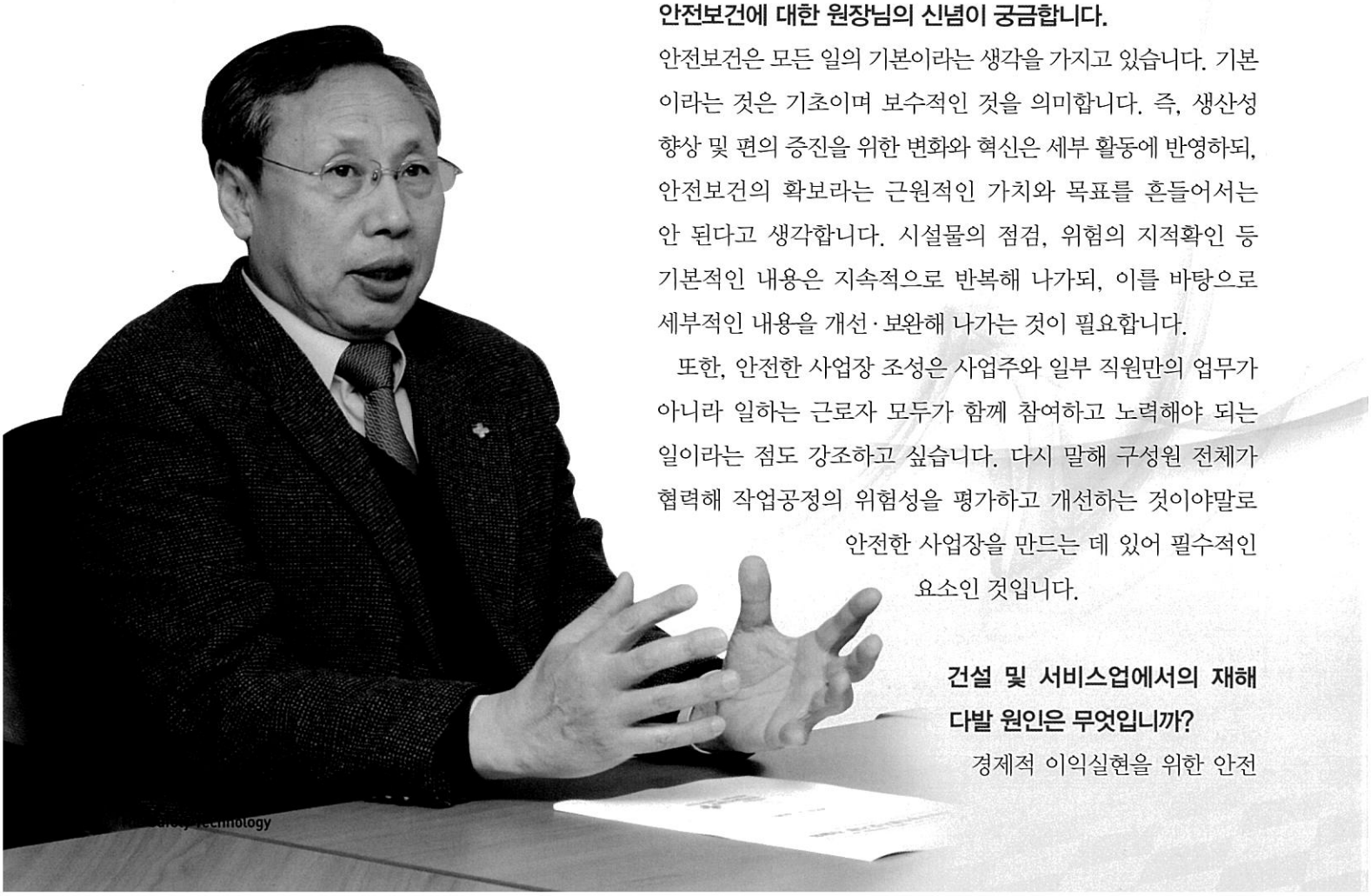
위험성평가의 조기정착에 사업역량 집중

이덕재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장
취재 연슬기 기자 skyway@safety.or.kr

대한민국의 심장인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안전보건공단 서울북부지도원은 강북지역 12개구(중구, 종로구, 마포구 등)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 내에 국내 대표 건설업체의 본사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유명 백화점과 음식점 등도 밀집돼 있다. 즉 건설 및 서비스업종의 작업적 특성과 안전보건현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도원은 이들 분야의 안전보건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지속적인 산재 감소와 우수한 사업수행으로 2011년도 경영평가에서 전국 1위(S등급), 2012년도 경영평가에서 A등급을 달성하기로 했다. 이런 성과 덕에 서울북부지도원은 건설안전의 산실(産室), 서비스업 산재예방의 메카로 불린다.

이처럼 큰 활약상을 보여 온 서울북부지도원이 최근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초 부임한 이덕재 원장을 필두로 한층 더 다양한 산재예방 네트워크의 구축에 총력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원장을 만나 향후 계획과 재해감소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안전보건에 대한 원장님의 신념이 궁금합니다.

안전보건은 모든 일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것은 기초이며 보수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생산성 향상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은 세부 활동에 반영하되, 안전보건의 확보라는 근원적인 가치와 목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의 점검, 위험의 지적확인 등 기본적인 내용은 지속적으로 반복해 나가되,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개선·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안전한 사업장 조성은 사업주와 일부 직원만의 업무가 아니라 일하는 근로자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되는 일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구성원 전체가 협력해 작업공정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건설 및 서비스업에서의 재해 다발 원인은 무엇입니까?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한 안전

보건의 '후순위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우선 건설업의 경우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수주나 재하청 등을 무리하게 시도할 때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자재의 납품, 설계하자 등이 발생하고 이것이 결국 사고를 불러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영세성이 재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서비스업 사업장의 대부분은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사실상 이들은 산재예방에 나설 인원과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첫째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과거 성장기의 빨리빨리 문화를 벗어나 이제는 조심조심 안전하게 일하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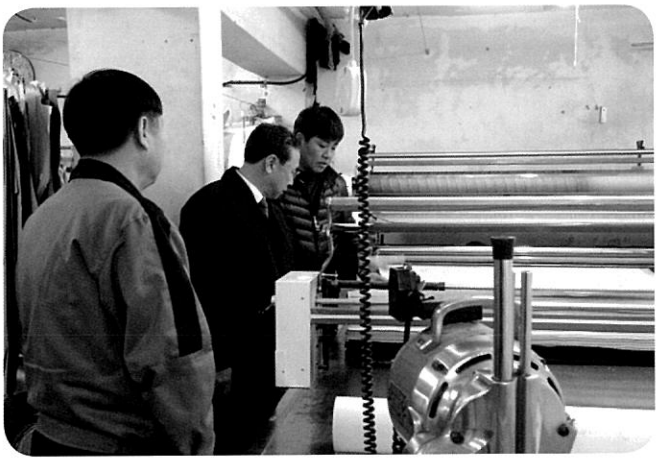
둘째로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조문이 천여 개에 이르는 등 사업장에서 인지하고 대응하기가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 발생 시 법적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소극적인 안전보건활동에만 치중하는 사업장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정부는 올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 사업주에게 자신의 사업장 내 위험성에 대해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는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된다면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작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 개선을 꾸준히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최근 화학사고가 급증하며 국민들의 우려가 상당합니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화학산단 내 생산설비 등의 노후화가 사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기계설비 등이 장기간 화학물질에 노출되면서 탱크나 파이프 부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경우 설비에 대한 정밀한 안전점검으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헌데 아직도 많은 현장들이 기존의 점검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주요 설비점검과 소모품 교체 등을 위주로 하는 기본적 정비에 머물러 있는

KISA 조대석



상황입니다.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부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원가절감 차원에서 위험한 설비의 유지 · 보수를 하청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부실관리로 이어져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험설비의 유지 · 보수 작업 시에는 설비의 안전과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철저히 감독하는 한편 설비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의 안전보건인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인 여러분, 우리는 안전보건의 선도자로서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위험을 예지하는 능력을 키우고, 근로자에게는 감성적으로 다가가 안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해나갑시다.

비록 그 과정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거북이와 같이 꾸준하게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으로, 끊임없이 사업장 내의 불안전한 상태와 행동을 개선해 나갈 때 안전보건은 이루어진다는 말을 전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